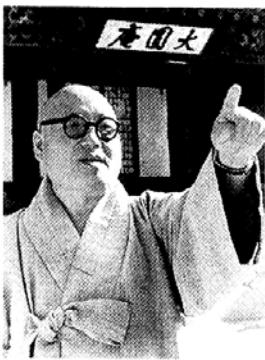


다시듣는 탄허스님 육성강의

동양사상 특강

탄허문도회 펴냄



장의 CD에 담은 것이다. 교재에는 강의의 주된 내용을 풀어쓴 '삼교평심론' '이혹론' '원정론' 등을 담았다.

탄허 스님은 강의를 통해 불교의 선사상과 화엄경을 비롯해 유교·도교·기독교 등 동서양의 종교와 철학을 넘나들며 스님 특유의 우주관과 인생관 등을 설파한다. 전국 강원의 중강 이상의 스님 8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 강의에는 현 조계종 총무원장인 정대 스님과 교육원장 무비 스님 등도 참가했다.

스님은 <신화엄경합론> 47권을 비롯



1913년 1월 15일 전북 김제 만경에서 태어난 탄허 스님은 19세부터 3년간 한암 스님과 우주와 인생의 근본에 대해 서신문답을 했으며 21세에 한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평소 승려 교육에 힘 쏟은 탄허 스님은 화엄경을 비롯해 육조단경, 보조법어, 사교, 사집 등 많은 불전을 번역했다. 월정사 조실, 조계종 중앙역경 연구원장, 화엄학 연구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1983년 6월 5일 향년 71세로 입적했다. 입적 뒤 종교인으로서의 최초로 국가가 추서하는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값 12만6천원. 02733-3334

화엄합론 등 CD 18장에 담아

탄허 스님의 육성 강의를 담은 CD <동양사상특강> 교림이 나왔다. 그동안 스님의 법문과 강연, 인터뷰 등을 정리한 법어집 <부처님이 계신다면> 교림 등이 선보였지만 스님의 육성 강의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동양사상특강>은 탄허 스님이 1977년과 1982년 동안 거간 동안 하루 8시간씩 화엄합론과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등을 강의한 내용을 녹음한 250여 개의 테이프를 간추려 18

몇해 20여종의 번역서를 내놓았을 뿐 대중들을 위한 법어집은 직접 저술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스님이 평소 즐겨 말씀했던 '다언(多言은 사자(沙子)의 병이 되고 번문(煩文)은 도가(道家)의 해가 된다'는 말에서 찾을 수 있다. 스님의 육성법문 일부는 탄허닷컴(www.tanheo.com) 육성듣기 코너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다.

출판 담당=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불교용어 기초지식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는 문자 그대로 풀어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뜻이다. 따라서 인간의

수아홍원 지음 석원연 옮김

연 옮김, 들꽃누래이 번역되어 나왔다. 1928년 동경제국대학 인도철학과를 졸업하고 30년 이상 불교학을 연구한 지은이는 <원시불교> (판음출판사), <불교의 기초지식> (홍법원), <불교의 원점> (경서원) 등 일반인들이 불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을 펴냈다. 이번엔 나온 <불교용어 기초

세밀한 해석·도표 곁들여 이해 도와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깨달음의 도를 성취할 수 있도록 불타의 가르침을 전해 주고 실천을 도와주는 종교라 할 수 있다"

'살아 있는 팔만대장경'이라 평가 받는 일본 불교학자 수아홍원(水野弘元)의 책 <불교용어 기초지식> (석원

지식)은 어렵게만 느껴지는 불교용어를 세밀한 해석과 도표 등을 이용해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했다.

불교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 불교의 분류, 3보와 3과, 3법인, 4법인, 연기설, 4제설, 수도론, 번뇌론에 이르기까지 8장에 걸쳐 설명하고 있다. 값 9천9백원.

능엄경 정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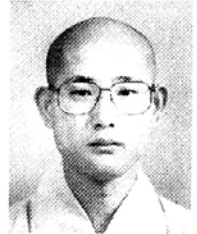
해인사와 통도사 등의 불교전문 강원 강수를 지낸 각성 스님이 <능엄경 정해> 하권을 펴냈다. 올해 초 1권부터 5권까지의 내용을 담은 상권을 펴낸 데 이어 하권에서는 6권부터 10권까지의 본문과 번역은 물론 상세한 해설까지 담아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다.

'능엄경'은 밀교부에 수록되어 있으며 인도 바깥으로 유통되지 못하게 하라는 왕의 엄명이 있어

각성 역음

당나라 이전까지는 중국에 전해지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이 경의 주된 내용은 아난다가 마다가 여인의 주술에 의해 마귀도에 떨어지려는 것을 부처가神通력으로 구해냈으며, 이후 선정의 힘과 백산개다라니의 공력으로 모든 마귀장을 물리치고 선정에 전념함으로써 깨달음을 얻어 생사의 고뇌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값 8만원.

특별기고



마성스님

팔리문헌 연구소장

도올 김용옥 선생이 초기불교를 접하고 인도로 가서 달라이라마를 만난 뒤, 그의 불교관은 어떻게 변했을까를 기대하면서, 나는 그의 책 3권을 하루만에 다 읽었다. 그리고 몇가지 고언을 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그의 배움에 대한 끝없는 열정과 달라이 라마와 나는 진지한 대화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낸다.

나는 개인적으로 도올 선생이 초기 불교에 눈을 뜬다는 점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비로소 그는 불교의 정문에 들어선 것이라 할 수 있

도올의 '초기불교' 이해 정확한가?

김용옥 저 '달라이 라마와 도올의 만남'을 읽고

다. 불교학은 아람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미로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도올 스스로 "선종은 대승의 중국이자, 거대한 불교사상사의 말류이다. 우리는 말류를 가지고서 원류를 함부로 추측하는 오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된다." (1권, p.100)라고 토로하고 있다. 그의 저서 3권에서는 산만할 정도로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나는 초기불교를 공부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의 초기불교 이해에 관한 부분 중에서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그는 아직 팔리삼장과 한역 아함의 조직 체계와 그 대응 관계는 물론 팔리삼장의 편제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테면 제

1권 註4에서 "이 4부4아함과 5니까야의 양전(兩傳)을 대조 연구함으로써" (1권, p.231)라고 했다. 그런데 팔리경장은 다섯 니까야(Nikaya, 즉 5부이고, 이에 대응하는 한역은 4아함이다. 따라서 위 문장은 "4아함과 5니까야의 양전을 대

조 연구함으로써"라고 표기해야 한다. 그리고 팔리성전협회(Pali Text Society, PTS)에서 발행된 로마자 팔리삼장을 PTA본으로 잘못 표기하고 있다.

둘째, 도올의 초기불교 이해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본다. 나는 그의 책에서 초기불교에 관한 새로운 학설이나

특기할 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미 선행 연구자들이 밝혀 놓은 것을 이제서야 접하고 스스로 감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단적인 예로 그는 마치 자신이 최초로 중도(中道)의 참뜻을 파악한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 하지만 초기불교에 관한 약간의 지식만 있어도 중도는 고(苦)와 낙(樂)의 중간이 아니라 고행주의와 쾌락주의를 벗어난 새로운 길

그가 말한 New Way임을 알 수 있다. 셋째, '붓다'가 깨달음은 연기(緣起)였다'는 것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이미 교과서에 나오는 진부한 이야기이다. 그가 연기설로서 붓다의 전체 교설을 이해했다는 점은 수긍이 간다. 하지만 문제는 연기야말로 진짜 붓다

'연기설'만 붓다 핵심사상 단정은 잘못

붓다의 자취 '전설'서 찾은 건 자의적

입산 출가 후 즐겁게 참선 수행에 정진해온 한 남자의 구수하면서도 진솔한 수행이야기!!

선방 이야기

토굴 土窟 이야기
농인 스님 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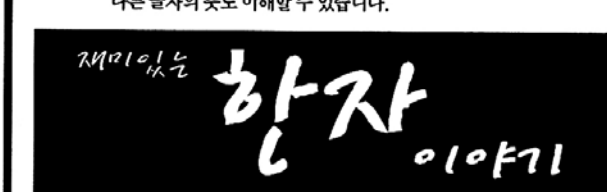
깨달음을 향한 치열한 수행, 가슴을 저미는 애뜻한 사연, 세속을 떠난 여유, 피식 웃음을 자아내는 재미, 우리 삶을 일깨우는 작은 울림

맴고 잔맛에 길들여졌다가 양념 하나 안된 자연식을 맛보았을 때의 느낌이 이렇까. 복잡한 사회에서 숨들릴 틈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청량제가 될만한 책. 읽다보면 문득 '깨달음'에 한 걸음 다가선 듯한 느낌에 빠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대한매일신문

국판/230쪽/7,500원

원리를 알면 漢字를 쉽게 깨우칠 수 있다!

한자는 대부분 모양을 본떠 만든 상형문자이거나 추상적인 지사문자, 그리고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부수나 글자의 어원을 이해하면 그것을 확장하여 다른 글자의 뜻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도 한자 전문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면 누구나 재미있게, 쉽게 익히도록 이야기식으로 꾸미고 있는 데, 글자마다 그 글자가 본시 어떤 내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졌나 하는 어원을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쓰이는 한자만을 응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1,800여 한자를 중심으로, 반복학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원리를 이해하도록 해준다.

신용태 저/신국판/554쪽/17,000원

한 권으로 끝내! 한문 공부의 핵심! 알기 쉬운 한문 해석법
심재동 지음/신국판/383쪽/12,000원

은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 타운힐빌딩 3층
전화 0213672-7181-5 (출판부) 926-8361